

# 세상살이 고달픈 산사에 놓고 가시게



결망에 담은 산사 이야기  
임윤수 지음 | 가야넷 |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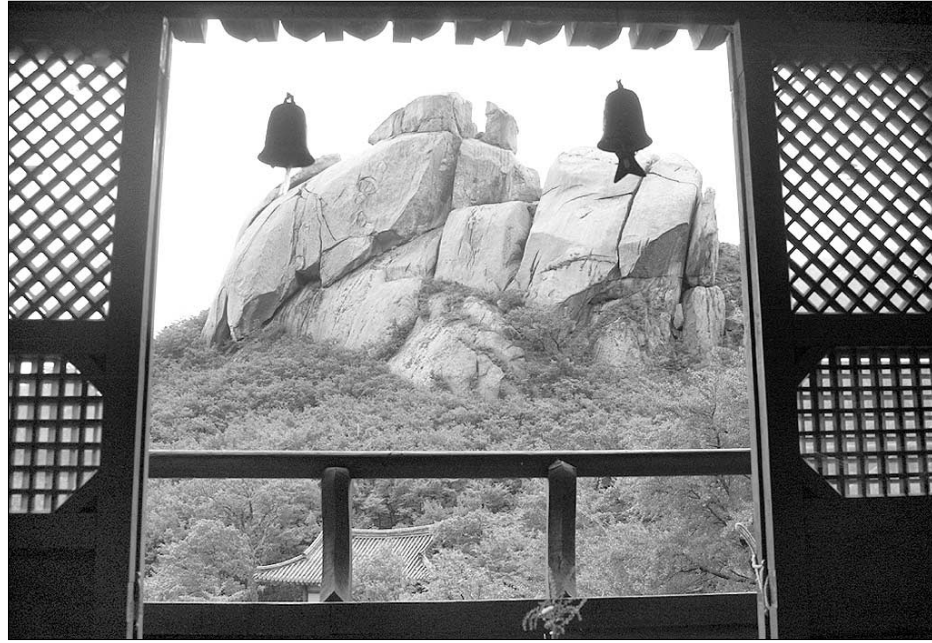
## 오마이뉴스서 폭발적 인기 끌며 1년간 연재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서 '결망에 담은 산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연재가 시작됐다. 대학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라는 지은이의 이력도 색달랐지만, 서암 청화 정대 율하 서용 스님 등 원로 스님들의 대비식을 빠지지 않고 '인터넛 중계' 하던 그의 부지런함이 더욱 눈에 띄었다.

지난 1년간 매번 1만여 명의 독자를 불러 모으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결망에 담은 산사 이야기'가 같은 제목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지은이 임윤수(45) 씨는 조용한 산사를 혼자 걸으며 '망각 속에 묻힌 추억'을 쫓기 위해 '카메라와 기억력'을 결망에 담아 놓고 4년 동안 산사를 찾아다니게 됐다고 말한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철보사 조실 석주 스님을 찾아뵙고 받은 '방하작(放下着)'이라는 화두도 여행 내내 그를 뒤따랐다.

그의 여행은 삼보(三寶) 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에서부터 4대 관음 도량, 5대 적멸보궁을 거쳐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산사에 이르기까지 30여곳의 사찰을 아우르고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지역별 대표 사찰도 소개해 주말여행을 할때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스님들의 대비식에서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담담한 모습으로 담은 사진들도 그의 책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과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찰의 소개도 덧붙였다.



금강산 화암사 라아원에서 내다 본 모습. 창틀에 걸려진 수비위의 모습이 한쪽의 수채화 같다. (사진제공=가야넷)

책에 담긴 그의 사진은 비록 전문 사진가의 그것처럼 세련되거나 멋지진 않지만, 평범한 여행객의 시선으로 담아낸 풍경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상원사 적멸보궁 인근 마애불담 앞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 놓아 둔 신도들의 물병이 먼저 눈에 띄고, 들다리 밑에서 부서지는 계곡 물이나 단청을 하지 않은 실상사 전각의 처마 끝, 내소사 대웅전의 꽃살문 나뭇결 등도 모두 소중하게 다가온다.

"산사에서 느꼈던 마음의 평온함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에도, 주체할

수 없이 기쁠 때에도 산사를 찾아보십시오. 가장 듣고 싶은 위로와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사입니다. 그 위로와 칭찬을 받아 들일 만큼 아주 조금만 마음을 열어준다면 말입니다."

"여행을 통해 마음을 비우진 못해도 과제중 이런 육신의 무게는 14kg이나 줄일 수 있었다"며 활짝 웃는 그의 결망에는 이제 '놓음'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과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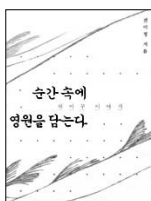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새로 나온 책

■ <석가모니 부처님> (곽영석 지음, 미리내, 9천원) = 불교청소년문학진흥회 곽영석 사무총장이 펴낸 청소년 포교 교재.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부터 출생과 출가, 구도의 과정과 열반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몄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믿음으로 더욱 윤택한 삶을 가꾸어 나가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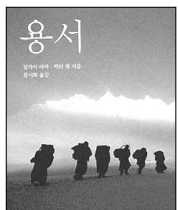
■ <순간 속에 영원을 담는다> (전이정 지음, 창비, 9천원) =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로 불리는 하이쿠(俳句)의 세계와 유명 작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하이쿠는 서정과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잘 버무려진 일본의 전통적인 시 형식으로, 불과 17자로 마무리된다. 지은이는 "하이쿠의 시어는 가슴에 쌓이고 쌓여 가득 채워진 후 새어나온 침묵을 담아내기 때문에 표현된 말의 주변에 표현되지 않는 무수한 말을 전한다"고 말한다.



■ <숫대문학 2004 가을호> (숫대문학 편집부 엮음, 9천원) = '2004 가을호'에서는 새싹희 신현득 초대 이사장과의 대담과 가을특집 '역사 속의 장애인' 두 번째 편이 담겨 있다. 또한 <숫대문학> 창립 멤버인 이숙경 선생의 추모특집과 김영수 화백의 작품과 그의 작품을 모티브로 쓴 김영수 씨의 글을 볼 수 있는 '김영수의 캔버스 세상'도 마련되어 있다.



# 용서, 나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



용서 달라이 라마 · 빅터 헨 엮음 | 류시화 옮김 | 오래된미래 | 9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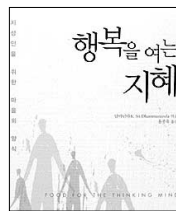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살면서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당할 때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홍콩 출신 물리학자 빅터 헨 역시 1950년 티베트를 강제점령하면서 수많은 티베트인들을 학살한 중국인에 대한 티베트인의 감정이 이와 같을 것 이리라 믿었다. 하지만 헨은 중국인들의 이러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유머와 명량함이 넘치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에서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때문에 달라이 라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당신은 중국인을 미워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이 질문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나는 중국인들을 무

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30여년 간 달라이 라마의 곁에서 절친한 친구로 지내온 빅터 헨은 달라이 라마와 대화한 내용을 묶은 <용서>(원제 The Wisdom of forgiveness)에서 "용서하라, 그래야만 행복해진다"라는 "용서의 철학"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 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달라이 라마는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라고 말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 간다면,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 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그 즉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과 질투와 원한의 감정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용서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그를 역시 똑같은 인간이고, 그를 또한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혹시 내가 중국인들을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제비심을 잃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대해 장난을 치거나 질문자의 대답에 제쳐 있게 답하는 달라이 라마의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 소개된다. 지은이는 이러한 달라이 라마의 유머가 "용서에서 나오는 당당한 힘"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 지구촌 명사들의 행복법



행복을 여는 지혜  
담마난다 엮음 | 홍중욱 옮김 | 지혜의나무 | 1만1천원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J. M. 베레) 스리랑카 출신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포교활동을 펼쳐 온 담마난다 스님이 엮은 명언모음집 <행복을 여는 지혜>가 번역되어 나왔다. 이 책에는 불교에 관한 현학적인 토론이나 골치 아픈 해석이 아닌, 71년간 수행해 온 담마난다 스님이 직접 접 거려 뽑은 '세계 명사들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이 실려 있다. 행복해지는 방법이란 곧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의미한다. 각 명언들은 하나하나가 짧고 명쾌해 출근시간이나 잠자기 전과 같

이 틈날 때마다 읽어보면 마음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성서의 구절과 철학, 과학, 역사, 심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명언이 폭넓게 실려 있어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다. 평생을 포교에 힘써 온 스님의 '노하우'가 엮여있는 듯하다. 열두 살 때 출가한 스님은 이후 인도에서 철학을 연구하며 포교에 전념하다 1952년부터 회교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정착해 50년 넘는 기간 동안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얀마 정부로부터 불교계 최고의 명예인 '악기마하 판타'라는 칭호를 부여받기도 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법구경> 등 60여권에 달하는 스님의 저술은 세계 20여 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된 바 있다.

이은비 기자

##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오제부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2	인연법과 마음공부	해국 스님	효 립
3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 터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 름 아 쥘
5	선방가는 길	정 천 주	열 립 원
6	중편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 성 철	불교시대사
7	텐진빠오의 마음공부	텐진 빠오	열 립 원
8	불교란 무엇인가	고 영 섭	정 우 서 적
9	하루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턴하우스출판
10	스님이야기	지록 스님의	여 시 아 료

도서 안내: (02)737-0695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역경의 제등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이 시대의 아부 선사! 대원 문계원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조계종 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

# 불교의 최고봉인 화엄, 그 화엄의 정수를 담은 화엄경현담이 새롭게 재출간되었습니다

**한글 화엄경현담의 결정판!**

- 불교를 공부하는 이라면 반드시 알아 할 화엄의 세계, 그 원만한 모습이 알기 쉽게 출간되었습니다.
- 국한문을 병기하여 한글과 한문으로 동시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엄경현담 주해집도 첨부되어 화엄은 물론 불교가 폭넓게 설명되었습니다.
- 4×6배판 양장제본 케이스

팔만대장경 중 최고봉의 경전으로서 대승불교의 정점을 이루는 화엄경은 장엄한 보살도의 실천과 사사무에(事事無碍) 법계연기(法界緣起)는 상생(相生)의 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생생하고 이보다 더 치밀하게 연기의 도리를 설한 철학과 사상은 아직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화**엄경현담은 이러한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깊고 미묘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화엄경현담은 불교 전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전통강원의 증심교세로 활용되어 왔으나 한문으로 독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재출간된 화엄경현담은 국한문을 병기하여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누구라도 화엄의 현묘한 도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조계종출판사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화 (02)2011-1880-1 팩스 (02)720-6019

구 입 | 각권 35,000원 / 전4권 140,000원  
신청 즉시 택배로 운송해 드립니다.  
승금계좌번호 | 농협 053-01-254866 (재)대한불교조계종  
국민은행 765-01-0017-288 (재)대한불교조계종